

지난 19대 총선, 도내에선 초선이 77%

이번 총선도 '물갈이 폭풍'

19대 총선, 대규모 세대교체

익산을 전정희, 3선 조배숙
남원순창 강동원, 3선 이강래
군산 김관영, 3선 강봉균 놀리

제20대 4.13 총선에서도 지난 19대 총선때와 같이 '물갈이 폭풍'이 몰아칠지 주목된다.

역대 총선에서 정치신인들이 승리한 사례가 적지 않아 이같은 시각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전북지역 역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대 총선부터 19대 총선까지 도내 총 33명의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초선은 17명이었다. 특히 19대 총선에서는 11석 중 7석(77%)에서 초선의원이 차지,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졌다.

당시 익산을 전정희 의원은 3선인 조배숙 전 의원을, 남원 순창 지역의 강동원 의원은 3선인 이강래 전 의원을 놀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김관영 의원 역시 3선이었지만 강봉균 전의원을 경선에서 이겨 군산지역 정가를 출렁이게 했다.

또한 17대와 18대 총선에서도 각각 5석을 초선이 차지, 40%가 넘는 점유율을 나타내기도 했다.

공천 경쟁과 인지도 등에서 현직보다 불리한 수밖에 없었지만 현역의원과의 경쟁에서 승리, 새로운 정치 지평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이번 20대 총선 역시 물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익산지역은 전정희 의원의 컷오프로 이미 결정됐고 일부지역의 경우 정치신인과 재입성을 노리는 정치인들의 거센 도전으로 현역교체가 예상되고 있다.

선거구재조정 이후 10석중 최대 절반가량의 현역 의원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중앙정치 무대에서 도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여의도 국회 화장실을 찾아 가는데만도 2년이 소요될 정도"라는 우스갯소리와 함께 잦은 교체보다

20대 총선, 현역 '제인지' 예상

익산을 포함 일부지역
정치신인 등 거세게 도전
10석 중 절반 '교체 가능성'

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실제로 3선 이상 중진 당선자는 19대 2명, 18대 8명이 재선은 19대 2명, 18대 2명 등에 불과해 전북 정치력 약화라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된다.

황계룡 전북행정개혁혁신연대 이사는 "전북 정치권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는 것은 '중진 역할론'이다. 그러면 중진 의원으로서 성장제한한 정치력을 갖춘 인물이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이런저런 이유를 든다면 전북 정치 인물난은 오래 갈 것이다. 현역의원들 면면을 살펴보면 결코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 비판으로만 깎아 내릴게 아닌 꼭 필요한 인물들은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어르신 돌봄은행' 사업
전주시, 도내 최초 운영

전주시가 돌봄에서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노인돌봄 봉사활동을 포인트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돌봄은행'을 전북지역 최초로 운영한다.

지난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노인돌봄수요를 지역사회 내 민간차원인 돌봄봉사자와 연계해 노인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어르신돌봄은행)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전북도 기초관리본부로 지정된 전주시 금암노인복지관(관장 서안철)이 맡아 수행하게 된다.

어르신돌봄은행은 돌봄봉사자들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말벗과 여가활동 보조, 가사와 일상생활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 활동 결과가 봉사 1시간 당 1점씩 포인트로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영재 기자



느림하게... 절도있게...

익산시에 위치한 육군부사관학교가 지난 28일 장준구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올해 첫 부사관 임관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신입 부사관이 경례를 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 北 핵·WMD에 단호한 메시지 발신”

정부 당국자는 2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의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은) 북한의 자금 확보, 핵·미사일 고도화 등을 못하도록 차단하기 때문에 이 결의안이 이행되면 북한의 핵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구상에서 가장 폭압적인 정권으로 볼 수 있는, 북한 주민에게 희생과 고통을 가하는 지배계층을 겨냥한 포괄적인

외교부 “결의 이행시 자금 확보 등 차단... 핵개발 어려울 것”

제재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이번 제재가 2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 핵·미사일 등과 관련된 기술과 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결의안 조항에서

‘촉구’했던 조항들을 ‘의무’로 수정하는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결의안은 북한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수준의 강한 권고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전 결의안에서는 의심되는 물품이 실렸다고 의심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으나 새 결의안은 의심되는 정보만 있으면 모든 회원국이 영해에서 북한 선박을 전수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항도

강화됐다. 새 결의안에는 소형 무기와 재래식 무기도 북한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까지는 소형무기 등이 개인의 신변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한 만큼 예외로 허용했으나 새로운 결의안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 금융제재도 강화됐다. 이 당국자는 “북한 은행과 자산에 대한 금융 제재 차원에서 북한 은행, 북한 내 들어 있는 해외 은행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은행 계좌를 열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금융제재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주 기자

전주시내 곳곳 3·1절 행사 다채 기념식·독립운동 추념탑 헌화·타종행사 등

전주시는 제77주년 3·1절을 맞이해 3월 1일 오전 10시 도청 3층 공연장에서는 애국지사, 주요 기관 및 단체장 광복회원, 보훈단체, 군 경, 학생 등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한다.

(관련기사4면) 기념식은 국민의례, 독립선서서 낭독, 국가유공자 포상, 송하진 도지

사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생촌 독립애국지사 이회동(91), 이석규(90), 보훈단체장, 광복회원 등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참석해 조국의 독립과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위업과 3·1운동정신을 기린다.

기념식에 이어 오전 11시에는 전

북도지사, 전주시장, 국회의원, 도의장 시의장 35사단장 교육감, 전북지방경찰청장 등이 독립운동추념탑을 찾아 헌화하고 분향 참배한다.

정오에는 풍남문 종각에서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국회의원, 도의장 시의장 광복회선정인사 단체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탑헌선인 민족대표 33인의 업적

과 3·1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타종행사가 열린다. 같은 시각 평화의소녀상전립시민추진위와 전북겨레회에서는 전주지역의광장(풍남문광장)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과 함께 3.1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를 위한 31분간 침묵시위를 갖는다. /김영재 기자

제12회 진안고원운장산 고로쇠축제
2016. 3. 12. 토 ~ 13. 일

진안군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삼거광장
(축제장 장소 :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75-1)

100년 양생! 100년 개가 노을동여야? 진안고원 고로쇠가 그렇게 좋다!

축제 즐길거리

첫째날 : 건강걷기대회(0.5L 무료증정, 11:00), 사랑담은 고로쇠 비빔밥 고로쇠 수액 빨리마시기대회, 고로쇠 가수왕 선발대회 등

둘째날 : 고로쇠수액체험, 팔딱팔딱 송어잡기, 대박 율놀이대회 등

먹거리 : 고로쇠 막걸리와 돼지숯불구이, 고로쇠 국수, 전통음식(떡, 두부) 고로쇠 찜빵, 고로쇠 삶은감자 등

주최/주관 : 진안군 / 진안고원운장산고로쇠축제위원회, 축제문의 : 문화체육과 (063-430-2393), 구입문의 : 주천면 (063-430-8391)